

대전농협 조합장, 자격 있나? 없나?

충남 보령시에 위치한 대전농협의 조합장 자격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의 심판대 올려져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대전농협 김 모 조합장의 자격 논란은 지난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보자에 의하면 당시(2002년) 김 조합장은 A씨의 보령시 죽정동 370-1 필지 1,835㎡를 임차해 대전농협 조합원에 가입했다.

이후 2003년 해당 필지는 토지주가 다른 필지에 합병시켜, 김 조합장이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된 토지 필지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로 인해 농업협동조합법 및 농협정관에 기재돼 있는 조합원의 당연한 탈퇴 사유에 해당해 조합원 자격을 박탈해야 옳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김 조합장은 대전농협의 전무와 상임감사를 재직하면서 매년 실시되는 조합원 실태조사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해당 필지에 농사를 경작하는 것으로 기재 즉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돼 2015년과 2019년 전국조합장동시선거에 출마, 현재까지 조합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있다. 2019년 이 사실을 인지한 조합원 B씨는 대전농협에 김 조합장의 조합원

탈퇴처리를 요청했으나 상임감사를 포함한 임원진과 조합원 자격 유무를 심사하는 이사회는 사실을 묵인한 채

아무런 조치 없이 임기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조합원 D는 “단위농협은 특성상 상임감사를 비롯한 임원진과 이사들이 조합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현재 조합장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했다. 이에 다른 조합원 C와 대의원들은 농협법에 따

소송에 따르라는 이야기만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 사건은 모 조합원 개인의 사비를 들여 ‘조합장선거무효소송’에 이르렀고, 현재 재판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보자는 “조합원 자격도 없는 김 조합장은 대전농협 이사회에 변호사 선임비용 수 천만원을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 처리 했다”고 말하고 “조합원들의 피파 어린 출자금으로 운영되는 대전농협이 개인의 소송을 위해 조합의 막대한 재산상 손해에도 불구하고 이를 진행하는 것이 과연 옳바른 것인지, 6,400명에 이르는 대전농협 조합원들도 이런 사실을 알 권리가 있기에 제보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유명무실한 농협법과 권리만 있고 책임은 지지 않는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의 태도는 돈

선거, 잠깐이 선거라 불리는 농·축협 조합장 선거가 개선되는 커녕 오히려 부추기는 역할의 중심에서 있다”고 관리 감독 기관인 상급기관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지난 6일 대전농협을 방문한 CTN취재진에게 농협 관계자는 “현재 소송 중인 사건으로 옳고 그름에 대해 답변해 줄 수 없다”고 말하고 “제보자가 주장한 김 조합장의 개인 소송 비용은 본인이 부담했고, 농협에 제기한 조합장선거무효소송건은 농협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농협 측에서 대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모 조합원이 김 조합장 개인에게 제기한 ‘직무정지처분’은 기각됐고, ‘형사고발 건’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했다.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조합장선거무효소송’으로 법은 김 조합장이 조합원 자격 여부를 갖췄는지 즉 조합원 실태조사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해당 필지에 농사를 경작하는 것으로 기재된 사실 여부를 어떻게 파헤쳐 판결할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민준 기자

경찰대학, '2023학년도 편입학 전형계획' 발표

일반대학생 25명·재직경찰관 25명 모집 선발

경찰대학(학장 최해영)은 개교 4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2023학년도 편입학 전형계획'을 발표하고 전형 일정을 공개했다. 처음 시행되는 경찰대학 편입학 제도는 '문호개방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재 영입'이라는 개혁방안을 구체화하고, 새롭게 도약할 미래 경찰대학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도입됐다.

'경찰대학 개혁추진위원회'에서는 편입학 도입 발표 당시 '유능한 경찰인재 양성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데 주력했다'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할 경찰대학이 국민과 14만 경찰관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편입학 제도는 일반대학생 전형과 재직경찰관 전형으로 구분되며, 각각 25명씩 총 50명을 남·여 구분 없이 통합 선발하며, 편입생들은 2023학년도에 경찰대학 3학년으로 입학 편입하게 된다.

일반대학생 전형의 지원자격은 편입연도 기준 17세 이상 44세 미만으로, 전공 구분 없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63학점 이상(2022년 12월 31일 기준, 2년 4학기 이상 이수)

또는 학점은 행정계 70학점 이상 취득하거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어야 한다. 일반대학생 전형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전적대학 성적 평균(100점 만점 환산점수 기준) 80점 이상 획득한 경우 제한 없이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필기시험 성적순 모집인원의 3배수를 대상으로 신체 및 체력검사, 적성검사,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최종합격자는 필기시험 60%, 체력검사 20%, 면접시험 20%의 비중으로 합산해 결정한다.

필기시험은 '영어'와 '언어논리' 2과목을 실시하며, 영어는 독해, 논리 추론 중심으로 출제할 예정이고, '언어논리'는 인문사회, 과학기술, 문화 예술 영역 등 폭넓은 분야에서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문제를 구성해 출제할 예정이다.

재직경찰관 전형의 지원자격은 일반대학생 전형의 지원자격을 포함해 근무경력, 치안성과평가 등이 반영된다. 또한, 토익 기준 625점 이상의 영어성적을 획득해야 지원할 수 있다.

전형방법은 경찰대학에서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을 경찰청 및 시·도 경찰청으로 통보하면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은 심사위원회 평가를 통해

5배수 명단(125명)을 경찰대학으로 추천한다.

경찰대학은 추천자를 대상으로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성적순 모집인원의 3배수를 대상으로 신체 및 체력검사, 적성검사,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필기시험은 행사특별법을 포함한 '행사법' 객관식 단일 과목을 실시한다.

전형 일정은 2022년 4월 모집요강을 공고하고, 같은 해 10월 초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서류전형, 재직경찰관 추천절차를 같은 해 10월 중 완료할 예정이다. 필기시험 및 신체, 적성, 체력검사는 같은 해 12월에 실시하며, 2023년 1월 초 면접시험을 거쳐 2월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최종선발한 50명(일반대학생 25명, 재직경찰관 25명)은 2023학년도에 3학년으로 편입해 2021학년도에 입학한 경찰대학 제41기와 함께 수업을 받고, 경찰대학 제41기로 졸업 후 경위로 임용된다.

졸업요건은 2년간 84학점 이수, 봉사활동 48시간, 영어성적(토익 790점 기준), 사격 등이며, 신입생과 동일하게 법학사 또는 행정학사와 경찰학사 복수학위를 수여 받게 되고, 졸업 후에는 일선 치안현장에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게 된다.

경찰대학 편입학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대학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성진 기자

문영숙·리채운 작가, CTN교육신문 집필진으로 활동

고정코너, '꼭 알아야 할 독립운동가 최재형'과 '신사임당의 자녀교육법'



문영숙 리채운

[CTN]역사의 변방에서 잊혀져 가는 소외된 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코리안디아스포라 문영숙 작가와 소설 대조영을 저술한 리채운 작가가 CTN과 CTN교육신문의 집필진으로 합류했다.

문 작가는 CTN과 주간신문 CTN교육신문에 고정 코너인 '꼭 알아야 할 독립운동가 최재형'을 통해 연해주에서 폐지카로 불렸던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의 정신을 알리게 되고, 리채운 작가는 '리채운의 신사임당의 자녀교육법'이란 고정코너를 통해 현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미래를 성공적으로 열어가 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줄 예정이다.

문영숙 작가는 역사 동화와 청소년소설 '무덤속의 그림', '궁녀 학이', '아기가 된 할아버지', '치매

마음안의 외판방 하나', '에네켄 아이들', '검은 바다', '까레이스키 끝없는 방랑', '꽃재비, 영대', '벽란도의 비밀청자', '독립운동가 최재형', '글썩아프르 독일로 간 광부', '위안부소설(그래도 나는 피었습니', '〈안중근의 마지막 유언〉, 〈산과 인물로 본 임시정부 100년〉 등을 저술했다.

또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잊혀진 독립운동의 대부, 최재형>을 국방일보에 총 49회 연재했고, 2019년 1월 3일부터 18일까지 임정수립 백년특집 <임정루트를 가다>를 중앙일보에 총 5회 연재했다.

이어 2019년 6월 대통령직속 임시정부수립, 3.1운동 100주년 추진위원단과 중앙아시아순방, 2019년 8월 위안부소설 <그래도 나는 피었습니다> 영문판 (TRAMPLED BLOSSOMS) 출간.

2020년 <안면도의 역사를 묻다>, <잊혀진 독립운동가 최재형>, <나의 할아버지 인민군 소년병>을 출간했다.

리채운 작가는 지난 1990년 <세계일본 신춘문예>시부문 당선, 2003년 <문학과 창작> 소설신인상, 2017년 <한국시 문학상>본상 수상,

도서출판 <시민문학사> 주간, 인터넷 서점 CEO 역임했고, 현재 핸드폰 책쓰기코칭협회 코칭본부장, 도서출판 <작가교실>, 책방을 운영하고 있다.

저서로는 ▲경제/경영서로 <삼성이 사람들 이야기>, <현대가의 사람들>, <삼성처럼 경영하라>, <황의 법칙>, <마윈과 손정의 원원게임>, <정주영과 잭 웰치의 팔씨름> 등이 있고, ▲자기계발서로 <부자의 서>, <안철수의 서재>, <위대한 결단>, <18세, 네 꿈을 경영하라>, <어린왕자의 성공법칙>, <세상에 핸드폰으로 책을 쓰다니!>(공저) 등이 있다.

또 ▲역사/신화/종교/철학서로 <그리스로마 신화(전2권)>, <중국 4000년의 정신>, <독렐러, 십일조의 비밀을 안 최고의 부자>, <조역아리스토텔레스의 말> 등이 있으며, ▲장편소설로는 <대조선(전3권)>, <주몽>, <대조영(전2권)>, <아버지>, <하모니>, <기황후>를 저술했고, ▲시집으로 <이인슈타인의 시>, <모르는 곳으로>, <노래 중의 노래>를 발간했다.

한편 안창현 CTN 자문위원은 논설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가금현 기자

제12회 2층1호 전국백일장 공모전 '시작됐다'

전국의 초·중·고 및 일반인 대상·6월 11일 마감

적물문화회가 주최하고 CTN교육신문(발행인 가금현)과 한국청소년보호연맹 서산·태안지회가 주관하는 제12회 2층1호 전국백일장 공모전'이 지난 3일부터 오는 6월 11일까지 진행된다.

매년 현장에 모여 문학의 재능 뽐내던 2층1호 전국백일장대회는 지난해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공모전을 전환 개최하고 있다.

특히 이 백일장은 단일대회 도교육감상 5개가 주어지고, 상금도 많아 전국 최고의 백일장대회로 손꼽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각 학교의 학생들이 매년 기다리는 대회(공모전)로 손꼽히고 있다.

가우약 장군의 3대가 보여준 충효정신을 기리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이 대회(공모전)은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상장과 상금이 준비되었으며, 입상작품은 수상집으로 발간되어 무료로 배부된다.

개회 요강을 보면 ▲참가 대상은 전

국의 초·중·고등학교(재학생 및 동등학력자)·일반인 ▲응모 기간은 2021년 5월 3일(월) ~ 6월 11일(금) (당일 소인까지 인정)된다.

▲주제는 △초등저(초등 3학년 이하): 보고 싶은 얼굴 △초등고(초등 4학년 이상): 그리운 것들 △중등부: 추억 그고등부: 잊지 말아야 할 것들 △일반부: 가슴에 되새기는 일 이다.

▲참가 부분은 초등부·중등부·고등부·일반부: 운문(시)/산문(수필 등) 부문이며, ▲참가신청은 참가자가 다음카페 적물문화회(http://cafe.daum.net/AGMYDYD) 공지 사항 및 제12회 2층1호 전국백일장(공모전)에서 200자 원고지를 다운 받아 응모 기간 내에 작품제출 하면 된다.

▲접수 방법은 첨부한 신청서를 작성해 출품작과 함께 우편(우편접수: (31980) 충남 서산시 읍지8로 41-5, 한국청소년보호연맹 서산·태안지회 2층1호 백일장 담당자 앞) 또는 방문접수(동일)하면 된다.

▲요강 및 신청서, 원고지는 다음 카페 적물문화회(http://cafe.daum.net/AGMYDYD)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참가자 유의사항으로 ▲참가비: 무료 ▲작품 원고는 반드시 주회 측이 올려놓은 200자 원고지로 작성 ▲산문작품 제출 시 매수제한 200자 원고지 기준으로 초등부 200자 원고지 기준 12매 이하, 고등부 200자 원고지 기준 15매 이하, 일반부 200자 원고지 기준 15매 이하 ▲작품 원고 안에 반드시 학교, 학년, 이름, 전화번호(연락처)를 자필로 표기해 주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신청서와 원고는 합철 제출하면 된다.

▲표절된 작품은 심사에서 제외하며, 입상 후 표절이 밝혀질 경우 입상이 취소된다.

주회 측 관계자는 “지난 공모전에서 모 고등학교의 학생들은 주회 측이 올려놓은 원고지를 사용하지 않아 좋은 작품인데도 단 한 명의 학생도

입상하지 못한 아픔이 있다”면서 “반드시 주회 측의 요구대로 원고지를

20만원 ▲장려: 다수 상장과 상품권 ▲입선: 다수 상장 ▲초등부 ▲장원: 1

1명 충청남도교육감 상장과 상금 30만원 △장려: 다수 상장과 상품권 ▲입선: 다수 상장 ▲일반부 ▲장원: 1명 CTN 신문사 대표이사 상장과 농특산물 △입선: 다수 상장이 수여된다.

또 우수지도자상 △지도교사상 1명: 충청남도교육감 상장 △학교장 공모상(가장 많은 입상자를 배출한 학교장)에게 수여된다. ▲수상자 발표는 2021년 7월 1일자 CTN 신문, CTN교육신문, 다음카페(http://cafe.daum.net/AGMYDYD)에 공지할 예정이며, 시상식은 별도공지한다.

가금현 발행인은 “문학에 관심이 있거나 재능이 있는 국민과 학생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 자신의 재능을 보여주기 바란다”면서 “특히 각 학교에서 관심을 갖고 학생들에게 이러한 전국백일장 공모전에 참여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2층1호 전국백일장 공모전은 충청남도교육청, 태안군, 한국서부발전, CTN이 후원한다.

/이재필 기자